

현대중공업가족

2021. 06





녹음이 짙어지는 6월,
나무들이 한결같이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청청한 하늘을 우러릅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싱그러움과
살가운 바람이 더 없이 상쾌한 날들,
현대중공업그룹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도
신록의 설레임을 가득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촬영 전호성 기자(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기획 : '녹색 혁신'이 답이다	이제는 必환경	04
	환경경영 가속	06
	일상도 친환경	09
	지구를 살리자	12
사람 · 일	혁신 기술을 만나다	14
	뉴스 포커스	18
	아름다운 동행	20
	기술인의 요람	22
	만나보았습니다	23
	우리 부서 미니 사보	24
지역 · 삶	가볼 만한 곳	26
	맛있는 이야기	30
	사랑을 나눕시다	32
	건강칼럼	34
	나를 만나는 시간	36
	문화 포커스	38
	이달의 영화	39
	사우들의 추천 도서	40
	칭찬합니다	42
	생활 법률	43
보람의 일터	뉴스 하이라이트	44
	그룹사 소식	48
	현중 가족 글마당	50
	축구단 소식	53
	아산 추모 20주기 독후감대회 수상작	54
	축하합니다	57
	쉬어가는 페이지	58
	공감 마당	59



hi, hhi
현대중공업
기업블로그 바로가기



현대중공업 가족 2021년 06월호 발행일 6월 3일

발행처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 052)202-2237 / 현대미포조선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 052)250-3319 / 현대삼호중공업 총무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 061)460-4600

친환경 대신 필(必)환경, 환경이 '생명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최초의 UN 환경회의를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매년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필환경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자연의 거듭된 경고, 외면할 수 없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뿌리째 바꾸고 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말 그대로, '뉴 노멀' 시대다.

일각에서는 인류에게는 재난이던 코로나19가 지구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관광객 발길이 줄어든 베네치아의 물이 맑아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낮게 집계됐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지구 환경에 좋은 영향만 미친 걸까.

가장 직관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



화됐는데, 하루에도 수차례 집 앞으로 배송되는 택배 박스를 받다 보면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상자를 열었을 때 포장에 사용된 테이프, 완충제, 아이스팩을 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플라스틱 포장재가 전년 대비 20%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막는 것이 가장 급한 숙제라지만, 환경 문제를 마냥 뒤로 미뤄놓을 수도 없다. 팬데믹의 원인 중 상당수가 환경 문제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 6년간,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숲 중 축구 경기장 4만개 규모가 통째로 사라졌으며, 1994년부터 녹은 빙하의 총 무게가 28조 톤(t)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구 온난화와 악화되는 생태계가 인류가 지금껏 겪지 못한 새로운 위협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필환경 시대를 이끄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필(必)환경'이라는 말은 2019년 '트렌드 따라잡기' 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하면 좋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용어다.

이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 속 환경보호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됐다.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LOCCITANE)'은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재활용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일부 리필 용기를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는데,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제품 용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 역시 사용 후 버려지는 1회용 알루미늄 캡슐을 수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분리된 알루미늄은 생활용품이나 자동차 부품에, 커피가루는 농장의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하다. 매출액의 1%를 풀뿌리 환경 단체에 지원하고 있고, 무상으로 의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새 옷을 사는 대신 옷을 고쳐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유해물질은 물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암모니아 추진선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저탄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드워드 월슨은 「생명의 미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자연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요즘 나온 책이라고 생각되면 오산이다. 무려 15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실제로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거대한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무슨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 몫이 됐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가 '당연한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껏 외면해 왔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지키는 '그린 팩토리' 조성

ESG경영, 탄소 중립 등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전 세계 기업들이 환경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국제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공인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그룹사별 ESG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또 탄소 중립시대에 발맞춰 조선·해운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개발에 온 힘을 쏟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의 환경경영 한계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관리부터 에너지 절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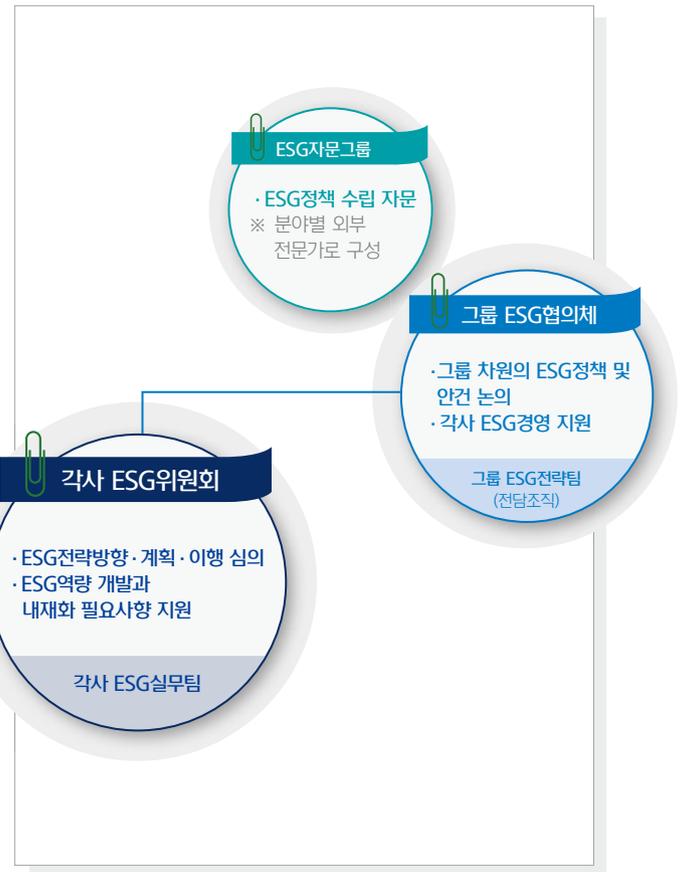
그룹사 ESG위원회 신설로 녹색경영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환경(E)이다.

현대중공업그룹 8개사(현대중공업지주,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에너지솔루션)는 최근 ESG위원회를 설치, ESG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3~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산하 조직으로, 각 사별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고 역량 개발과 내재화를 위한 필요사항들을 지원한다.

| 현대중공업그룹 ESG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



현대중공업그룹은 각사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로 구성된 ESG 협의체도 구성해, 그룹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현안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룹사별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환경, 동반성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자문그룹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발맞춰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미래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 12일(월) 한국선급(KR)과

'친환경 규제대응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에너지효율지수(EEXI) 개선을 위한 최적 솔루션 ▲탄소집약도(CII) 향상을 위한 선박운항 효율 개선 방안 ▲무탄소 연료 추진선 공동 개발 연구 등 탈탄소를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수소 드림(Dream) 2030 로드맵'을 선언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3천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하며 친환경 선박 건조에 나서고 있다.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환경경영 노력

현대중공업

국제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을 기반으로 환경경영체계 구축,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등 오염물질 저감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 조성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시청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 5만세제곱미터(m³) 이상 대형 도장공장에 방지시설 설치와 원료 개선을 통해 **지난해 목표(2014년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13.5% 저감) 초과 달성**

IPCC 국제 기준 및 국내 온실가스 산정 지침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전사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HGMS) 운영**. LED 등 고효율 설비 도입, 공급 전압 조정 및 해상 시운전 공정 개선을 통해 **지난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KAU) 대비 5% 이상의 배출권 감축 성과**

RTO(축열식 산화설비) 등 노후화된 설비 교체, 보일러의 저녹스(低NOx) 버너 설치 투자, 방지시설의 충전물 주기적 교체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 지속**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통해 공장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파악과 빅데이터 분석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활동 지속

3R[감량화(Reduce)·재활용/재이용(Recycle)·회수이용(Recovery)]을 실천하는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 **지난해 자원순환이용률(재활용률) 목표 26% 대비 50%로 초과 달성**

현대미포조선

질소산화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사내 전 보일러를 저녹스(低NOx)용으로 교체 중이며, 도장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포집해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축 등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억원의 친환경 설비 투자 진행**

2009년 '온실가스 감축 TFT'를 발족해 일찌감치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이산화탄소 감축과 에너지 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

2017년부터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FEMS)**을 운영, 공장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파악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용 효율 개선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유지, 국제기준의 환경경영체계 구축. 지난해 대비 20%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방법을 개선해 재활용률을 증가시켜 **소각되는 폐자재 최소화**

울산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블라스팅 공장, 노후차량(장비) 등 **미세먼지 발생 설비를 축소·단축 운영**

환경을 생각하는 선박 건조를 위해 ▲고연비 평형수 무배출 선형 개발 ▲친환경 연료 추진선 개발 ▲ICT 융합 전기추진선 개발에 총력.
내부 임직원에게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에너지절감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 시행

현대삼호중공업

국제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요건에 부합하도록 환경경영 전산시스템 구축, 에너지 사용 책임제, 시운전 공법 고도화, ICT 원격제어 등을 운영.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대비 태양광 발전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다양한 에너지 감축활동**으로 친환경 사업장 조성

자재 입고 시 화학물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유해성 여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저장, 사용, 처리절차 및 시설물 **월1회 정기점검**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방류수 배출 법기준 대비 5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오폐수 처리수를 지하체로부터 중수도로 송인받아 **매년 18만톤 이상** 아드청소용수, 선박평형수 등으로 재이용해 **연간 1억원의 원가 절감 기여**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장소별, 종류별로 발생량 확인 및 분리수거 점검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 선별자재 전시대 운영,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정부 목표 대비 폐기물 순환 이용률 42%, 최종 처분을 18% 초과 달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법기준 대비 30% 이하로 적용 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RTO(축열식 산화설비), CO(축매 산화설비) 저감 설비 설치 운영, **2020년에는 질소산화물을 할당량 대비 50% 수준으로 배출**

지구를 위해 시작한 일, 이젠 ‘나의 행복’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미래의 지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함에 따라,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기근과 경기침체를 야기할 것이다. 빙하들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동식물들이 멸종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아는 문제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에서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사우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밖에서 비 맞고, 눈 맞고 한참을 놀아도 걱정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구를 통해 누린 혜택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최초로 설립된 비영리자원순환가게에서 봉사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지원해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구 환경오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비영리 자원순환가게’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플라스틱(투명 PET / PET / 판 PET, PP, PS) 및 유리병, 우유팩을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 일정 기간별로 현금이나 페이로 캐시백을 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확한 분리수거법을 안내하고 재활용품 종류별로 상세 내역과 통계를 기록하며 분류함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형식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깨끗한 상태로 분리수거하는 진정한 활동이 전 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이 활동의 목표입니다. 저를 만나는 한 명, 한 명이 지구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식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비영리자원순환가게에서
재활용품 관리

“영웅만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조선해양품질경영1부
진선일 차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반찬 살 땐 반찬통, 음료 마실 땐 텀블러 챙겨요”

현대중공업 전장설계부
황호준 책임엔지니어



맞벌이라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자주 사먹는 저희 부부는 유리 재질의 반찬통을 꼭 챙겨갑니다. 반찬을 사서 집에 와 옮겨 담기 위해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회사에서 물을 마실 때나 카페를 이용할 때도 가끔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 사우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보세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

“지구도 지키고, 건강·재산도 지키고!”

현대중공업 외업공사지원부
서용배 기사

저는 2년 전 야음동으로 이사를 한 후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이 되는 매연 배출을 아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통 체증을 겪지 않아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구요!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 도전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 인사팀
김영빈 사우

이제는 음식점에 가면 “포장해 갈게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가 낳은 결과죠.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식을 하고 싶으면 배달앱에서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에는 항상 쓰레기 처리라는 딜레마가 뒤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울산박물관에서 환경예술 사진작가인 '크리스 조던'의 특별전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가가 직접 연출한 영화 <알바트로스(Albatross)>를 보고난 후 이전에는 없었던 충격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편리함을 가장한 게으름은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나 또한 많은 일회용 용기를 쓰고 있음을 자각하며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한 배우의 SNS를 통해 '#용기내챌린지'를 알게 됐습니다. 음식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아닌 텀블러, 천주머니, 다회용기 등을 활용하자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저도 용기내챌린지를 생활속에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방문하기 전 텀블러와 다회용 용기를 에코백에 넣은 후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온 용기를 꺼내는 것이 많이 민망했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손님으로 비춰지면 어쩌나' 걱정하던 것이 무색할 만큼 직원은 익숙한 듯 용기에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인심 좋은 사장님들은 훨씬 많이 담아주거나 할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소소하게 시작된 용기내챌린지는 더 큰 의미로 제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회가 먹고싶을 땐 덮개와 접시를 챙기고, 수제비를 먹고 싶을 땐 냄비를 들고 식당에 가는게 전혀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2~3위 수준으로 특히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가 15.4% 증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의 편리함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분명히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설계부문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올해 초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저는 이번 부서 캠페인을 통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다짐 아래 텀블러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약 5개월간 꾸준히 사용해 본 결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텀블러의 무수한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온/보냉 기능입니다.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이 때 텀블러 하나면 시원한 음료를 장시간 보관하며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알지 못했던 제도로, 카페에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일명 '텀블러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사내 본관 1층 베즐리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시 쿠폰 1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장을 모으면 '아메리카노 1잔 무료', 100장을 모으면 '쿠기 3종 or 텀블러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사우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환경도 지키고 지갑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텀블러 사용으로
환경도 지키고,
지갑도 지켜요”**

현대삼호중공업 구조설계부
김민용 선임엔지니어



김민용 사우의 텀블러 관리 꿀팁!



베이킹 소다로 세척

베이킹소다는 천연 세제로 텀블러의 물때나 악취, 찌든 때를 없앨 수 있다.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 물을 담아 2~30분 뒤 행군다.



식초로 세척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고, 녹슨 텀블러의 녹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따뜻한 물과 식초를 10:1의 비율로 20분 정도 담갔다 씻어낸다.



달걀 껍데기 이용

물때와 찌든 때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로 삶은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수어 텀블러 안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 부어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준다.



세척은 빠르게 끝내기

세척시 물에 장시간 담가 두면 보온/보냉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완벽한 건조는 필수

텀블러를 세척한 후 완벽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며, 악취의 원인이 된다. 꼭 닦거나 말려서 보관한다.



탄산음료, 염분 음료, 유제품은 피하기

탄산음료와 염분 음료는 텀블러 내부를 부식시킬 수 있고, 유제품을 사용하면 텀블러에 냄새가 배기 쉽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불필요한 조명 끄기

사람이 없는 공간의 조명은 모두 꺼요. 밝은 낮에는 자연광을 활용해요.



걷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해요. 승용차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장바구니 사용하기

마트나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챙기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사기

물건을 살 때는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가능하면 친환경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요.



'지구 환경의 날' 알기

6월 5일은 UN이 정한 '지구 환경의 날', 지구 환경을 살리려면 평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요.



분리수거 하기

쓰레기를 왜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지 아이에게 설명하고,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는 아이가 직접 나눠 담게 해요.



개인 컵 쓰기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요.



천연 세제 사용하기

거품이 잘 나지 않더라도 환경과 가족 건강을 생각하는 천연 세제를 사용해요.



계단 이용하기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요.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절약.



음식물 남기지 않기

세끼 밥과 반찬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요. 음식을 만들 땐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요.



색소 음료 안 마시기

색소를 넣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 (하루 물 권장량 성인 1.5L, 아이는 몸무게 1kg당 50mL)



에어컨 대신 선풍기 틀기

더워도 하루쯤은 선풍기만으로 버텨보세요.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와 같은 전력이 사용되니까요.



물 쓰고 잘 잠그기

샤워하면서 비누칠을 하는 동안에 물을 잠가요. 양치할 때는 반드시 컵 사용하길!



장난감 바꾸기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은 이웃과 바꿔 사용해요.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요!



화학조미료 안 먹기

하루쯤은 화학조미료 없이 세끼 밥상을 차려요. 맛은 좀 덜해도 우리 가족과 지구가 건강해져요.

‘필환경’,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환경보호라 하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많다. 하루에 하나씩 한 달간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친환경 생활법을 소개한다.



이면지 쓰기

커다란 나무를 잘라 종이를 만든다고 설명하고, 스케치북이나 낙서한 종이를 이면지로 재사용해요.



손수건 쓰기

물티슈 대신 걸레를,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요.



공원 산책 가기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않고 곤충이나 작은 생물을 괴롭히지 않는 게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요리할 때 냄비 뚜껑 덮기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뚜껑을 열어두면 가스레인지 불을 더 오래 쓰게 되니 뚜껑을 덮고 사용해요.



빨래 한 번에 모아 하기

세탁기가 반쯤 찼을 때 빨래를 해야 한다면 절약 모드로 사용해요.



냉장고 문 덜 열기

냉장고 문을 10초 동안 열어둘 경우,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가는 데 10분이 소요 돼요.



고기보다 채소 많이 먹기

육류, 달걀, 생선 등 육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식품 원산지 살피기

국산 농작물은 수입 농산물에 비해 훨씬 신선해요. 오염 위험도 적고, 운반을 위한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 있죠.



목욕 대신 샤워하기

욕조 목욕 대신 샤워를 하면 에너지를 4배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환경 그림책 읽어주기

자연 환경보호나 쓰레기 재활용, 에너지 절약에 관한 그림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소감을 들어봐요.



제철 과일 먹기

간식으로 과자나 인스턴트식품 대신 제철 과일을 준비해요.



플러그 뽑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플러그를 뽑는 게 귀찮다면 온오프(on/off)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해요.



거실 전구 바꾸기

일반 전구에 비해 30%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구로 바꿔요.



다림질 모아서 하기

옷감을 종류별로 한꺼번에 모아서 다림질하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청구서 온라인으로 받기

모든 청구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영수증 발행 용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조선업 명운 가를 '차세대 융합기술'에 집중!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혁신기술은 기업의 존망을 가르는 열쇠다. 더구나 최근 기술 혁신이 다방면에 걸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특정 분야에만 집착하는 옛 사고방식에 갇히면 순식간에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차세대 융합기술을 잇달아 개발, 전 세계 조선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고 있다.

'친환경 기술'로 탄소 중립 대비

현대중공업그룹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IMO(국제해사기구) 2050'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인 수소·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는 연소 시 유해 배기가스는 물론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다년간 조선뿐 아니라 화공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축적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한국선급(KR)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액화수소운반선, 수소연료 추진선 등의 '수소선박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전략'에서 암모니아·LNG 혼소(混燒, 두 종류 이상의 연료로 하는 연소) 엔진 개발 국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암모니아 고압분사 시스템과 혼소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미국 ABS선급과 마셜아일랜드 기국과 함께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 인증(AIP)을 받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선박은 발전소나 제철소 등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액화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저장시설로 운송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각각 화물저장시스템(Cargo Containment System)과





선박 이접안 시스템 HiBAS



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선박 플랫폼



화물운영시스템(Cargo Handling System)을 개발, 이산화탄소 운송에 최적화된 선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갑판 상부에 날개 모양의 추진 장치를 달아 풍력을 보조적인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공기유회시스템(선체 바닥면에 공기를 분사해 선박의 마찰 저항을 줄이는 에너지 저감시스템), 선박용 연료전지(SOFC) 발전시스템(수소와 LNG 등의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고효율 전지)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우수기업과 기술 개발 협력 강화

국내 우수기업과의 기술 개발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5월 25일(화) 롯데정밀화학, 포스코, HMM,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선급과 '그린암모니아 해상 운송 및 벙커링 컨소시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손잡고 그린암모니아 국내 도입,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및 벙커링선 개발, 암모니아 벙커링 인프라 구축,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인증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암모니아 증발가스 처리시스템과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암모니아 벙커링 겸용 운반선을 개발한다. 롯데정밀화학은 포스코가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 암모니아의 운송과 저장, 벙커링 사업을 담당하며, 한국선급은 선박에 대한 인증을, HMM과 롯데글로벌로지는 선박 운영을 맡는다.

지난해 7월 영국 로이드(LR)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추진선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강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롯데정밀화학은 국내 최대의 암모니아 저장시설을 갖추고, 국내 유통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호주에서 연간 7만톤(t)의 그린 수소를 생산, 암모니아로 전환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계획을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 두산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80여개 산·학·연 기관들과 'K-CCUS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디지털 솔루션 사업’ 활발

현대중공업그룹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박 솔루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박 건조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선박의 설계, 건조, 인도 후 폐선까지 전체 생애주기를 관리하며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통합스마트십솔루션(ISS), 스마트 엔진관리솔루션(HiEMS) 등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전 세계 선주사에 공급해왔다.

올해는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선박의 해상 시운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선박 핵심 설비들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선박 솔루션 플랫폼인 ‘HiDTS’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1월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기본 승인(AIP)을 받은 ‘LNG선 가상시운전 솔루션’은 이중연료엔진, 연료공급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등 LNG운반선 핵심설비들을 ‘HiDTS’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통상 LNG운반선의 해상 및 가스 시운전은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여 운항 안정성과 가스 적재 및 하역, 탱크 냉각 등을 평

가하는데, 이번 인증으로 가상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성능 테스트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HiCAMS)’을 개발, 조선업계 최초로 한국선급 및 라이베리아 기국의 기본승인(AIP)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엔진룸 등 선박의 기계 구역에 설치된 20여대의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 화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씨와 연기 등을 포착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20년 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운항 솔루션과 항해보조시스템개발 전문업체인 ‘아비커스(Avikus)’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주변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알리는 ‘하이나스(HiINAS)’를 비롯해, 선박 주변의 360도 시야를 제공하며 이·접안을 돕는 ‘하이바스(HiBAS)’ 기술을 보유해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2030년까지 ‘FoS’ 구축

현대중공업그룹은 디지털 기반 조선 미래전략인 ‘FoS(Future



세계 최초 AI 선박 화재감시솔루션 기본 인증식

2030 디지털로 최적화 운영되는 초일류 조선소



of Shipyard)를 통해 전 야드에 걸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단계로 오는 2023년까지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구축 완료해, 현장의 안전과 생산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조선해양과 공동 개발한 ‘도장공장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도장공장과 소지공장 등의 공조장치들을 원격 제어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을 통해 유지비를 절감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량과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두고 있다. 또 이동체 감지 센서를 적용해 유사시 빅데이터가 자동으로 멈추는 ‘도장공장 빅데이터 카페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된다.

현대미포조선은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가스농도 자동 시스템’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마쳤다.

흡입식 가스 감지기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폭발성 가스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위험이 감지되면 관제센터는 물론 작업자에게 비상상황을 알려 위험을 줄인다.

현대삼호중공업도 올해 말까지 ‘스마트 강재 적치장’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강판 위의 마킹 표시를 스스로 인식해 자동으로 입고 처리하는데, 빅데이터와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정확히 문자를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고정밀 GPS(위치정보시스템)와 거리인식 센서로 적치장 크레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등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해 적치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까지 내업에 ‘생산실적 집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외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C에서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방식과 달리, AR 태그와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실적을 집계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으로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연결되어 예측되고 최적화된 공장(2024~2026년),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2027~2030년) 등 FoS 전략을 실현, 2019년 대비 생산성 30% 향상, 공기(리드타임) 30% 개선, 낭비 제로(Zero) 등으로 초격차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십 년 집약된 기술력 전수 협력사 경쟁력 키운다!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협력사 기술자문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31억여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이 넘는 현장 경험을 가진 기술지도사원들의 활약은 협력사들의 현안 문제 해결 지원은 물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총 경력 900년
집약된 기술 노하우
공유**

장기화된 불황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조선업종 협력사들이 수년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사내외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기술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기술자문제도란, 현대중공업에서 퇴직한 경력 30년 이상의 숙련 기술자들로 구성된 ‘기술 지도사원’이 기능인재 육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기술 컨설팅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술지도사원은 건조, 의장, 전장, 품질, 시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베테랑 기술인 25인으로, 이들의 경력을 모두 합치면 약 900년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지도사원을 통해 기술자문을 실시, 기술력 향상과 특수직종 기능인력 육성, 기술문제 해결 등을 중점 지원하며 사내외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로
31억여원 절감 효과**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사내외 협력사 2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자문을 실시한 결과, 공법 및 설계, 품질,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약 3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체 블록 제작 협력사인 (주)세진중공업의 경우, 용접 전문 기술지도사원이 상주하며 LNG 이중연료탱크 선박 제작 기술을 전수해 척당 2,100여 시간의 공수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성과를 거뒀다.

후행건조를 담당하는 (주)미송기업은 표준작업 및 검사 전 점검을 통해 NDT 합격률 7% 향상, 검사 합격률 100% 달성 등 작업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또, 후행 전기장치를 설치하는 (주)동울테크와 도장작업을 맡고 있는 해도산업(주)의 경우, 기술자문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생산량이 각각 23.2%, 35.2%씩 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품질/안전 개선, 다기능 근로자 육성, 작업방법 개선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최고 수준
기술자 충원
기술자문 확대 시행**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사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권덕환 기감(64세·2017년 정년퇴직)은 “36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협력사 고기량자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후행전장 사내협력사 (주)동률테크 김종덕 대표는 “기술 자문을 통해 공정지연에 대한 대응능력, 인원/물량 관리 능력이 향상됐다”며 “이론부터 실기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핵심기술 전수자, 명장, 명인 등 고기량 인력을 기술지도사원으로 사전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역량진단 실시, 용접 자격 보유율 향상 등을 통해 사내 협력사의 근원적인 경쟁력 향상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까지 찾아 사랑의 손길 내밀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희망나눔 릴레이를 이어갔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 더욱 세심한 배려를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지난 5월 6일(목) 울산 동구노인복지관에 지역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전자레인지 337대와 전용용기 세트 등 4천2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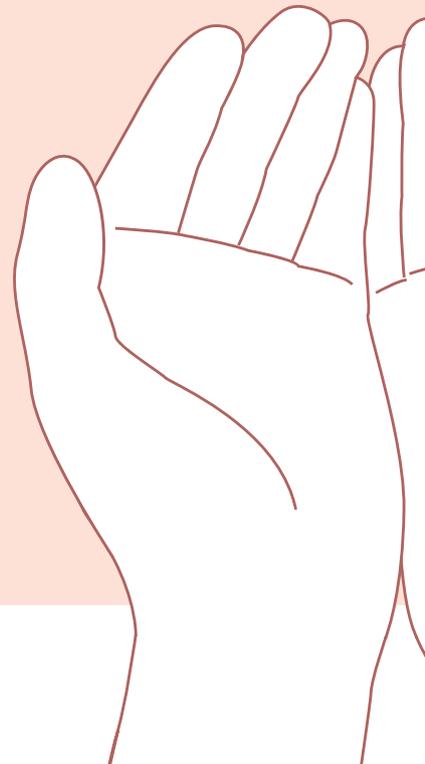
지난해 5월부터 '1%나눔진지방'을 열어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도시락 밀키트(Meal Kit)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전자레인지가 없어 음식을 데우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전자레인지와 전용용기 세트를 전달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10일(월)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노인복지관 등 울산 동구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에 매년 개최해 온 가정의 달 기념 공연을 대신해 총 1천700매의 현대예술관 영화 관람권을 제공했다.

이 관람권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시설 종사자와 봉사자에게 골고루 전달됐으며,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관람권으로 지급해 단체 관람이 아닌 소규모 개별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5월 12일(수)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가구에 건강음료, 즉석식품 등 기초 생필품



을 전달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기능장회는 지난 5월 5일(수)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40여만원과 선물, 저녁식사를 마련해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소외계층에 이웃사랑 전해

현대미포조선 봉사단체인 초롱회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월)부터 이틀간 울산 동구 지역아동센터 9곳에 햄버거 230여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간식은 초롱회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간식박스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초롱회는 동구 화암중학교 학생 6명에게 총 180만원의 장학금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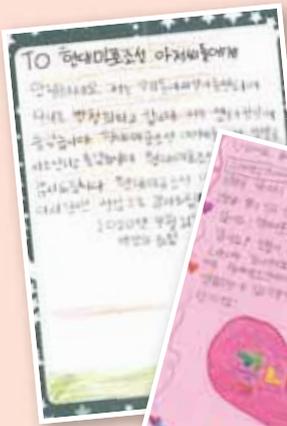
또 울산 동구 상진초등학교와 북구 호계초등학교 등 10여 곳의 어린이들에게 사내 모금함을 통해 마련한 성금으로 운동화 50여 켤레를 선물했다.

현대미포조선 기능장회도 지난 5월 19일(수) 동구 장애인거주시설인 울산삼사랑의집을 방문해 주차선을 새롭게 도색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4월 28일(수)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쌀과 식기류, 이불 등 1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영암군 소재 경로당 458개소에 전달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공사지원부는 지난 5월 1일(토)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청소년 보육시설인 영암군 영애원을 찾아 세초작업 및 나무 가지치기 등 시설 정비와 함께 세탁용품과 아이들을 위한 간식 등을 선물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을 통해 마련한 컴퓨터 5대도 함께 전달했다.



1년여 만에 열린 기술인력의 산실

현대중공업이 1년여 만에 기술연수생을 모집한다.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수주 부진에 시달리며 지난해 6월 이후 기술연수생 모집을 중단했다. 기술연수생 교육을 중단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 시절에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경쟁률은 평균 2대1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모집 재개는 조선업을 꿈꾸며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들어 조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4월까지 30척, 34억달러 선박을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었다. 이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47%에 달하는 실적이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선체 조립(용접·취부·도장)과 선박 의장(기계·전기·배관) 2개 직종에 총 100여 명을 모집하고 있다.

연수 기간은 9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이며, 실기와 이론 연수를 받게 된다.

하반기에도 1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기술교육원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울산시가 지원하는 훈련장려금을 합쳐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울산 외 지역이나 울주군 거주자에게는 기숙사가 제공된다.

향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생산기술직 채용 지원 시 우대 혜택도 부여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1972년 9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분기마다 평균 200여명의 연수생을 교육, 지금까지 4만3천800여 명의 기술인력을 배출한 바 있다.

기술연수생 모집

지원서 접수 ~ 2021년 7월 27일(화)

지원 방법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https://tei.hhi.co.kr>)

문의 ☎052)202-2315, 9125, 9121



‘아두이노’ 기반의 장치 개발로, 업무 효율성 높인다!

현대삼호중공업 선박커미셔닝부 사우 2명이 지난 5월 10일 (월) 조찬회장에서 ‘DT 신지식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돼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다.

수상의 주인공은 선박커미셔닝부의 이정삼 직장과 김효중 차장. 이들은 아두이노(Arduino) DT 신기술을 기반으로 ‘호선 내 기관실 주 조명 절전 자동 제어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전력 절감 및 근골격유발 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아두이노 기술이란 다양한 센서로부터 입력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 등과 같은 전자 장치들로 출력을 제어해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전에는 호선 내 조명을 수동으로 조작하다 보니 비상시 점등 불가, 오작동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정삼 직장과 김효중 차장은 호선 내 자동 소등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전등 소등 제어’를 구축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소 업무와 관련된 장비, 전자기기 등을 공부하며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아온 이들이지만, 조금은 생소한 아두이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장치를 제작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직장과 김 차장은 회사 내 주어진 업무로 인해 주로 퇴근 후가 되어서 겨우 장비 개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수백 번의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며 연구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4월 ‘아두이노 기반의 자동제어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이 장치는 NYK사에서 수주한 LNG선 엔진룸 기관실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주 조명 자동 소등은 물론 일일 적당 270킬로와트아워(kwh) 이상의 전력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

LNG선의 경우는 연간 적당 2천200만원, 그 외 일반선의 경우 적당 평균 2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아두이노 기술을 활용해 해수 냉각 펌프 절전 제어 모듈 적용, SLC 원격 점검 및 검사방법 개선, SMR 소프트웨어 원격 커미셔닝 추진, 블루투스 모듈을 통한 원격지 사운드 테스트, 온도센서를 이용한 선박 내 쿨링 펌프 작동 등 다양한 개선 활동도 펼쳤다.

이정삼 직장은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며, “김효중 차장과 함께 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효중 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개선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아두이노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정삼 직장, 김효중 차장.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 왼쪽부터 이정삼 직장 · 김효중 차장

‘소통·협력·조율’ 3박자 맞춰 선박 계약부터 인도까지 지원 척척

I 부서장 인사말



백근록 부장

우리 부서는 계약에서 인도까지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특성상 계약에서 인도까지 많은 절차가 존재하는데, 계약운영부는 건조 과정에서 고객과 야드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원들은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사의 이익 제고와 동시에 고객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도출과 신속한 선주 대응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지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운영부도 언제나처럼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선박 건조와 수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각 과별 소개

· PC선과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형 PC선 계약관리를 담당하

며 안정된 건조에 초점을 맞춰 명품 선박 '미포탱커'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 GAS선과



LPG, LEG, LNG 등 미래성장이 기대되는 가스운반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 등의 특수 선종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선종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획운영과



각 과가 맡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각종 정보 조사, 행정처리, 예산 집행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상주 감독관 서비스 지원 및 고객 만족 활동 행사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계약지원과



그룹 영업본부의 수주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선박 홍보 활동을 담당합니다. 선박의 우수성을 대

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서 이모저모

· 고객의 편지·

“고맙습니다 HMD 계약운영부”



스레코 하레이(Mr. Srecko Harej)
(Marinvest社 수석감독)

계약운영부는 성공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주사와 소통하고, 항상 고객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합니다. 현대미포조선에 일하는 동안 계약운영부는 사무환경부터 업무 외적인 활동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2020년 미포가족 사진 공모전'에 참여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것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진 부서가 있기에 현대미포조선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세계 시장에서 현대미포조선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기대합니다.

· 2011년 입사 후 200회 이상 사내 행사 사회 담당하고 있는 미포 명MC 김세은 대리를 소개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입사 후 처음 명명식 진행을 맡은 날이 생각합니다. 행사 중 애국가 후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도중에 끊어버린거죠. 지금이라면 여유롭게 대처하겠지만, 당시엔 정말 아찔했죠. 그럼에도 행사가 끝난 뒤 사장님께서 해주신 ‘잘했어’라는 한마디가 데뷔 무대의 아쉬움을 채워줬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바람?

“선박 건조의 대단원이라 할 수 있는 명명식이 최근 코로나19로 많이 생략돼, 성공적인 선박 건조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종식돼 많은 고객들과 함께 선박의 안전 항해를 기원하고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동해안 따라 ‘커피에 운치를 더하다’

동해안 해파랑길 9~10코스를 따라 올라가면, 울산 동구 주전 몽돌해변을 거쳐 북구 당사항, 정자항, 경주 양남에 이르기까지 예쁜 바닷길이 이어진다. 아름다운 수평선을 따라 걷거나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다.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특색 있고 매력적인 카페들이 몇 년 새 하나 둘씩 생겨나며 해안도시 울산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1 35mm

☕ 경주시 양남면 후동길 11-13

☎ 0507-1446-9778

🕒 매일 10시 30분~21시

세련된 갤러리 느낌의 35mm는 카페와 함께 풀빌라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산으로 둘러싸인 한가로운 시골 언덕에서 내다보는 바다의 전망이 참으로 아름답다.

건물은 세 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추럴한 스타일의 A동에는 계단식 좌식 평상이, 블랙과 그레이톤의 현대적인 느낌의 B동에는 워터커튼이 설치돼 빗소리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동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이다.

각기 다른 공간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어 산책하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35mm의 인기 장소인 캠핑장 느낌의 오두막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숲속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두 번(10시, 14시) 빵도 직접 굽는다.

35mm를 들른다면 근처에 있는 읍천항 벽화골목과 주상절리, 출렁다리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2 우가포 커피 로스터스



모던하고 세련된 외관에 오렌지색이 돋보이는 이곳. 바다를 향해 탁 트인 통창으로 마음껏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좋은 곳이다.

선베드에 앉아 파도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주문한 음료와 함께 눈 안 가득 바다 풍경을 담기 좋은 카페.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은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다. 견과류 시럽이 들어간 우가포라떼와 그 위에 달콤한 생크림을 얹은 우가포크림이 인기 메뉴다.

또 로스터리 카페답게 로스팅 원두와 더치커피 원액도 판매한다. 스몰웨딩(Small Wedding)도 가능하다.

단, 테라스와 루프탑은 안전을 위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아이를 동반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10

☎ 010-3286-1177

🕒 매일 10시~23시

입구에서부터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분위기가 압도하는 초대형 카페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도 무려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절로 실감난다.

어느 곳에 앉아도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오션뷰에,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식 좌석 중간중간에 세워진 기둥이 그리스 신전의 느낌을 준다.

탐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하는 빵과 고소한 냄새의 유혹도 피할 수 없는데 보기 좋은 빵이 역시 먹기도 좋았다.

한쪽 벽면에는 직원분들이 보유한 각종 자격증들이 전시돼 있고, 메뉴 중에는 국제 바리스타대회 수상작도 있어 맛에 대한 신뢰가 간다.

인기 많은 포토존은 입구 돌다리위와 2층의 그네, 천사날개 조형물이 설치된 루프탑이니 잊지 말고 인생샷을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



3 라메르 판지



☕ 울산 북구 판지1길 30

☎ 0507-1496-8791

🕒 매일 7시~22시

4 카페 보름

주전해안길에 아담하게 자리를 잡은 카페 보름은 1층은 카페, 2층은 펜션으로 운영된다. 미끄럼틀과 토끼 의자가 놓여있는 마당이 아기자기하다. 내부는 앤티크한 소품들이 멋스럽게 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수제 생크림을 올려 부드러운 보름라떼와 히말라야 소금이 뿌려져 단짠의 조화가 어우러진 주전커피. 뿐만 아니라, 브루스케타, 와플, 바게트, 크루아상 등 수준급 브런치 메뉴들로 마니아층이 두텁다. 싱싱한 제철과일을 푸짐하게 올려주는 인심과 정성에 골목골목을 돌아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울산 동구 주전해안길 196
☎ 0507-1306-7018
🕒 11시~20시 (일요일 휴무)

5 아비아채 하사정점 1920

예스러운 장독대와 우물이 있는 고풍스러운 전통 한옥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더해 매력적인 공간이다. 본채와 별채, 독채로 구분돼 있다. 스카치 크림라떼와 콜드샷 라떼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그니처 (Signature) 메뉴다. 이외에도 스무디와 요거트, 에이드, 디톡스주스까지 메뉴가 다양하다. 한옥카페 콘셉트와 맞게 서양식 브런치와 더불어 썸밥과 궁중떡볶이, 독배기 김치파스타, 절편구이 등을 메뉴로 구성한 센스가 돋보인다. 이곳은 '노을 맛집'으로도 알려져 있으니 해질녘에 방문해 봐도 좋다. 다만 차량 통행로가 좁아 초보운전자들은 조심해야 하고, 방문자가 많아 예약을 추천한다. 평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좌석 지정 예약도 가능하다.



☕ 울산 북구 동해안로 831-52
☎ 0507-1336-5959
🕒 매일 10~20시(브레이크타임 15~16시)

6 카페 버리

마당 한편에 놓인 빨간 공중전화 박스가 감성을 자극하고, 폭신폭신한 빈백이 바다 앞 1열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곳. 하얀 포말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파고든다. 큰 규모의 매장에 들어서면 맛있는 빵 냄새가 먼저 반긴다. 빵은 매장에서 직접 굽는다. 그 종류도 다양해 빵을 먹으러 오기 위한 고객도 꽤 된다. 예쁜 조명과 알록달록 화사한 색감이 사랑스러운 이곳의 인기 메뉴는 고소한 아몬드크림라떼와 수제 바닐라 시럽이 들어간 바닐라라떼. 테이블 간격이 여유 있어 답답하지 않고, 층별로 다른 컨셉과 분위기로 꾸며져 각자의 취향대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 좋다. 단, 안전상의 이유로 루프탑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반려동물은 1층 외부 테라스에서만 동반 가능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 울산 동구 물목길 20
☎ 0507-1339-0826
🕒 9시~23시(수~일) / 9시~22시 30분(월, 화)

7 카페 은린

아담하고 아늑한 한옥카페다. 공간들이 분리돼 있어 한옥의 고즈넉함을 더욱 느낄 수 있다. 뒷마루와 좌식룸은 물론이고, 파라솔과 야외테이블 아래 깔린 하얀 자갈은 이국적인 느낌을 풍긴다. 한옥 서까래 아래 화려한 상들리에 조명의 묘한 어울림이 감각적이고 재미있다.

특히 가마솥이 올려진 아궁이는 최고의 인기 포토존으로, 정겨운 시골 외할머니댁처럼 느껴지게 한다. 카페 은린은 바닷가 근처지만 과감하게 시골 논밭 풍경을 바라보는 곳에 자리를 잡아 이곳만의 매력을 더했다. 아이는 물론 반려동물도 동반 가능하며 '겉바속촉'의 정석 양버터 모나카와 고소담백한 흑임자라떼가 맛있다. 좁은 골목길과 협소한 주차공간은 아쉽지만, 그런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 울산 북구 아름1길 11
☎ 052-911-1020
🕒 평일 11시~20시 / 주말 11시~21시

8 그로운(Grown)

햇살이 가득한 통유리로 내다보이는 작은 마당이 참 예쁘다. 아담한 공간을 채우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에서 섬세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로운은 차아바타, 바게트, 페스츄리 등을 베이스로 하는 샌드위치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바닷가 앞에 있지만 건물에 가려 바다를 볼 수 없어 아쉽다. 그럼에도 싱그러운 초록 잔디밭을 보러 다시 방문하게 될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기념으로 귀여운 카페 스피커를 챙길 수 있다. 골목 안이라 주차공간이 넓지 않으므로 근처에 있는 정자회센터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을 추천한다.



☕ 울산 북구 정자8길 9
☎ 0507-1370-3830
🕒 11시 30분~20시 (화요일 휴무)

9 카페 우리집

이름부터 정겨운 카페 우리집은 사실 주인이 태어나고 자란 진짜 '우리 집'을 카페로 개조해서 더 의미있는 곳이다. 깨끗한 화이트풍으로 리모델링한 구옥의 멋스러움에 감각적인 올리브색의 벽난로와 그 위를 장식하는 빈티지 소품들이 아기자기하다.

한적한 바다와 멋진 바위가 한쪽의 그림이 되는 유리창과 액자 프레임 형태의 입구 포토존, 귀여운 알전구 조명이 있는 루프탑은 훌륭한 사진 배경이 되어준다.

이런 곳이라면 무얼 먹어도 다 맛있겠지만 커피와 잘 어울리는 달콤하고 쫄득한 꿀케이크를 꼭 추천하고 싶다.



☕ 울산 북구 신명길 155
☎ 0507-1331-7216
🕒 매일 11시~20시



아삭아삭 달큰한 ‘참외의 계절’

한여름 대표과일로 손꼽히던 참외가 벌써 마트의 과일판매대를 차지하고 있다. 샛노랑고 통통한 참외가 달콤한 향기로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며 발길을 멈추게 한다. 제철을 앞질러 나왔지만 맛과 향이 한여름에 먹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더욱 인기가.

참외로 지키는 여름 건강

참외는 아삭하고 달콤한 맛에 비해 100그램(g)당 31칼로리(kcal)로 열량이 낮고 수분이 90퍼센트(%)에 달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은 건강식품이다.

또 참외에 함유된 풍부한 칼륨은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여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참외의 다양한 건강 성분 가운데 엽산을 빼놓을 수 없다. 과일과 채소 중에 엽산이 가장 많이 든 식품이 바로 참외다.

참외의 엽산은 임신부와 태아의 신경계 손상을 예방하고 태아의 성장을 원활하게 한다.

특히 씨와 붙어있는 하얀 부분인 태좌는 과육보다 비타민 C와 엽산이 풍부하므로 장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씨까지 다 먹는 것이 좋다.

동의보감에 참외는 기침을 멈추고 가래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며 풍담, 황달, 이뇨작용에도 효과적이라 전하고 있다.

비염에 좋은 '참외 꼭지 차'

한방에서는 참외 꼭지를 '과체'라 부르며 약으로 사용한다. 참외 꼭지에 함유된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항산화작용을 통해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간 기능 보호, 염증 억제,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제부터 참외를 먹고 남은 꼭지들을 모아 차로 마셔보자. 참외 꼭지는 그늘에서 1주일 정도 건조하여 물 2리터를 기준으로 말린 참외꼭지 3~5개 정도를 넣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20분 정도 달이면 된다.

맛이 쓰더라도 꾸준히 먹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에 효과적이며, 간 기능 회복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며 유지에도 좋다.

맛있는 참외 고르기는 이렇게!

맛있는 참외는 껍질이 짙고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 하얀 줄무늬도 선명하고 골이 깊게 파인 것으로, 골의 개수가 10개 이상 되는 것이 맛있는 참외다.

사이즈는 너무 큰 것보다 한 손에 잡히면서 단단한 것이 맛있고, 물에 띄웠을 때 뚱뚱 뜨는 것이 싱싱한 참외이다. 참외는 냉장 보관하면 당도가 30~40% 정도 상승한다고 하니 실온에 보관한 참외라도 먹기 30분 전에는 차갑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냉장 보관시 신문지나 랩으로 하나씩 감싸서 밀폐용기에 넣어두면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싱싱하고 맛있는 참외를 즐길 수 있다.

정리 정은주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참외의 다양한 변신



참외피클

재료 참외 2개, 파프리카, 물, 식초, 설탕

- ① 흠이 없고 깨끗한 참외를 골라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해 잘 씻는다.
- ② 겉면의 물기를 제거하여 속을 파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③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참외, 파프리카를 차곡차곡 담는다.
- ④ 물, 식초, 설탕을 1:1:1 비율로 끓이고 한 김 식혀 유리병에 붓는다.
- ⑤ 실온에 두고 6~7시간 지나면 완성



참외무침

재료 참외 1개, 양파 1/4개,

양념장 고춧가루 1큰술, 식초 1~1.5큰술, 고추장 1/2 큰술, 참깨 약간

- ① 참외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세척하고 물기를 닦아준다.
- ② 참외를 반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가로로 얇게 자른다.
- ③ 양파를 채 썰고 얇게 썬 참외와 양념장을 골고루 섞어 참깨를 뿌리면 완성!

성주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참외 하면 경북 성주, 성주 하면 참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약 7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성주 참외 체험형 테마공원'이 있다. 온통 참외 캐릭터로 만들어진 실외놀이터인 <참외 어울림마당>과 볼풀장과 트램플린 독서공간을 갖춘 <참외랑 아이랑> 실내놀이터 외에도 족욕장을 갖춘 <원예힐링관>과 <성주사람들이 야기관>으로 구분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주소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 성주농업기술센터 참외생태학습원

문의 ☎ 054-930-8002

엄마와 아이 넷,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거야”

‘엄마, 학원 보내주세요’, ‘엄마, 맛있는 거 사 주세요’ 하는 해맑은 아이들. 유미 씨는 오늘도 태연한 얼굴로 4명의 아이들을 노련하게 달래본다. 갑작스런 남편의 가출로 홀로 육아와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참나무처럼 꾀긋하게 키워보겠다고 오늘도 굳게 마음먹는다.



순식간에 사라진 가정의 행복

고향이 포항인 유미(가명, 32세) 씨는 경주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행복만을 꿈꾸던 그 시절,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한 마디 말 없던 남편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첫 아이 미례(가명, 8세)를 출산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봐서라도 혼인신고를 했고, 앞으로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경주 외곽은 병원이 멀리 있는 등 아이를 키우기에 불편함이 많아 2014년 울산으로 옮겨왔다.

울산 생활은 전세방에서 시작했다. 방긋 지어보이는 딸아이의 웃음에 피곤함도 눈 녹듯 사라졌다. 남편은 밤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새벽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유미 씨는 꽃 같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꿈을 키워 나갔다.

유일한 걱정은 일과가 끝나면 고된 피로를 술로 풀곤 하던 남편이었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고,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잠만 자고 나가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러던 중 둘째 미진(가명, 7세)이가 태어났다. 가정에 무관심해져 가는 남편 탓에 두 아이들의 돌봄은 오로지 유미 씨의 몫이었다.

그 무렵 남편은 이곳저곳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전해주는 생활비도 점점 불규칙해졌다. 생활비가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셋째 미루(가명, 6세)가 태어났다. 남편이 전해주던 생활비가 현금 서비스를 받은 돈이라는 사실도 이때쯤 처음 알게 됐다.

늘어나는 카드빚을 막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은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다.

남편의 가출, 네 명의 아이들과 생계 막막

생활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넷째 미지(가명, 3세)가 태어났다. 염치없지만 힘들게 장사하는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손길을 청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쌓여만 갔다.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아이들과 놀아주면 좋으련만, 아이들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도 가끔 만나는 아빠와는 서먹함이 커져만 갔다.

앞친 데 덮친 격 2020년 11월 경 남편은 허리를 다쳤다. 반복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임대주택의 월세 46만원마저도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남편과의 갈등은 커져만 갔고, 그럴 때면 그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올해 설 연휴부터는 남편이 집에 오지 않고 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갈만한 곳을 사방으로 연락해 보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다. 수 없이 보내놓은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무책임한 남편만 믿고 더 이상 살아 갈 수 없어 협의 이혼을 결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다보니 아직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 가출 이후 수입이 완전히 끊겨 생계가 막막해졌다. 자신만 바라보는 네 아이들과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유미 씨는 남편의 가출 신고를 통해 3개월 간 월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 야간근로 등 가리지 않고 알아보다 중구청 드림스타트에서 5월부터 3개월 동안 공공근로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구청을 통해 자활 사업에 참여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되기를 희망했지만 경쟁

이 워낙 치열하다. 유미 씨는 서류 상 남편이 있고, 근로 경력이 전혀 없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빛더미 속에서도 곳곳이 희망의 끈 찾아

남편의 카드로 발생한 부채가 1천500만원에 이른다. 부채는 개인회생을 통해 매월 삼십만 원씩 일 년 넘게 상환하고 있지만, 앞으로 6년을 더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

다행히 4명의 아이들은 모두 건강한 편이지만, 눈에 사시 증상이 있는 둘째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하고 있다.

첫째 미래(가명, 8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있다. 특히 만화그리기를 좋아해서 동생들에게 그림을 그려 주기도 한다. 힘든 시간 잘 자라준 미진, 미루, 미지는 어느덧 어린이집을 함께 다닐 나이가 되어 걱정을 조금 덜었지만 여전히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이 버겁기만 하다.

유미 씨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정으로 주거비용과 아동수당 등 63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매월 집세 46만원, 부채상환 30만원, 아이들 특별활동비 30만원, 각종 공과금 20만원 등만 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수입보다는 지출이 커서 아이들이 가고 싶다는 학원을 보내주고, 먹고 싶다는 간식 한 번 제대로 사줄 수 없으니 엄마 가슴이 미어진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가출로 더욱 가중된 생활고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유미 씨. 남편과의 이혼이라도 빠르게 진행돼야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여전히 연락 두절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도 받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속절없이 외출타기를 하며 살아야하는 그녀. 희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응원의 손길을 기다려 본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느려지고, 떨리고, 뻗뻗해지고 ... 혹시 파킨슨병?

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뇌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놀랍게도 그보다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들리는 질환인 ‘파킨슨병’이 두 번째 퇴행성 뇌 질환이다.

파킨슨병이란?

파킨슨병은 뇌의 중뇌에 존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사멸하면서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나이가 고령일수록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는 12만명 이상의 환자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상은 어떤가요?

크게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으로 발생합니다. 운동 증상은 떨림, 서동, 경직, 보행 장애,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글씨가 작아지거나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걸을 때 한 쪽 팔을 덜 흔들거나 한 쪽 발을 끄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운동 증상은 경도인지 장애, 치매, 환시, 망상, 우울, 불안, 충동조절장애, 성격변화, 소변 장애, 손 떨림 증상, 잠꼬대 증상 등의 현상을 보입니다.

눈에 띄는 운동 증상과는 달리 비운동 증상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가 내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 증상보다 비운동 증상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파킨슨병의 진단에는 전문의의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의 뇌 질환의 진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MRI나 CT 등의 기타 검사들은 대부분 보조적인 수단으로, 파킨슨병 자체를 진단하는 목적보다는 파킨슨병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파킨슨병의 임상 증상으로 주로 서동증,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 등의 운동장애 증상이 특징적이기는 하지만, 증상 중에는 여러 가지 막연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수한 화학물질을 이용한 검사라든지 보조적인 진단 검사 등이 있지만, 환자분들의 특징적 증상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사 소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와의 연관성은?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6배 높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주로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인지기능과 시공간인지능력 감소가 특징입니다. 물론 기억력 감퇴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평생 치매가 발생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기에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미리 치매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고, 두뇌 활동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킨슨병 약은 늦게 복용하는 것이 좋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약물로 보충하는 도파민성약물의 증상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힘들지만 도파민성 약물을 꾸준히 복용할 경우 일상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파킨슨병 약물을 되도록 늦게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글을 읽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이나 한방 요법에 의존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치료법입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 뇌 운동 회로를 포함한 연결 기능들의 장애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파킨슨병 증상을 개선시키고 원활한 직장생활과 대인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1시간 전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

파킨슨병 약물 중 핵심 약물인 레보도파는 소장에서 흡수될 때와 뇌로 흡수될 때 단백질과 경쟁하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시 약효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레보도파를 포함한 약물을 복용할 때는 식사시간 보다 1시간 먼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이요법과 생활가이드

파킨슨병 환자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뇌세포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꾸준히 운동한 파킨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증상이 호전되고, 치매와 같은 비운동 증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스트레칭 체조 등을 골고루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파킨슨 병에서 피해야 하는 음식이나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식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고단백 식이를 하면 레보도파 약물 흡수가 방해되어 약효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고단백 식이를 피하거나, 약 복용을 식전에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서울아산병원**



점점 단절되는 자녀와의 대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아버지 역할 중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회적 규칙과 질서를 가르치는 역할을, 어머니는 정서적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유치원,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꽤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돈을 많이 벌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역할이 전부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부양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꼭 해야 하는, 정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들이지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들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합니다.

자녀가 어린 아이든, 성인이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존재만으로도 깊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녀들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침해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의 아버지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매사 열심히 하고, 또 잘 해내기 때문에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똑같이 해주길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면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 확신하며 늘 질책하고, 훈계하며 못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과 달리 자녀의 마음속에는 상처만 커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해와 인정, 격려를 애타게 갈구하는 자녀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아빠는 완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아이'라는 생각이 대신 자리를 잡습니다. 그 거리만큼 아버지로부터 멀어져갑니다.



때로는 훈계나 질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철사나 양철판이 아닙니다. 구부러진 것을 망치로 때린다고 곧게 펴지지 않기에 더욱 섬세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자녀의 안 좋은 점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며 마음처럼 잘 안될 때가 많아 힘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따뜻한 이 대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훌쩍 커버린 자녀와 대화를 하려해도 뭔가 어색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힘들지?”하고 얘기하면 아마도 반응은 “아니 괜찮아” 또는 “왜 물어봐?”와 같이 단답형 대답과 함께 이내 대화는 단절되어 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주로 아버지가 대화를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훈계입니다. 평소 아이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해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도 괜찮겠어?” 등 열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답답한 마음에 별책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아버지들은 아이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넌 어찌 생각이 그 모양이냐?”,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등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아버지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되려 자신에게 집중해주던 아버지가 돌변하는 모습에 자녀는 더 크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자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싫어집니다. 자신이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 누구나 대화 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오히려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더 예리한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이야기가 답답하고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게 되죠. 결국 서로가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잘 들어주고, 잘 대답해 주고, 잘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성장 했을 때, 어떤 아버지를 더 고맙게 여기고 그리워하게 될까요?

다른 아버지들보다 못 해준 게 더 많을지언정,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신감을 실어줬던 아버지가 아닐까요?

누구나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쌓아나간다면, 자녀들이 언젠가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글 **이현주** 상담사(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꿈과 사랑, 희망, 그리고 ... '행복을 그리다展'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휴먼 작가 7인의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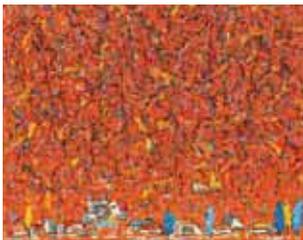
꿈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지치고 힘든 시기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전시가 현대예술관 미술관에 열린다.

두 눈 대신 촉감으로, 두 팔 대신 마음으로 그린 작품을 통해 좌절을 딛고 일어난 작가들의 의지와 희망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다.

유화, 수묵화 등 다채로운 기법으로 작가 7명의 삶을 담은 회화 80여점이 우리의 온기를 채운다.

김경이

개인전 17회,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다수 참여



- 희망/116.8X91cm/oil on canvas/2019
- 희망의 메시지를 따뜻한 마을 풍경에 담은 작품

박 환

시각장애인 화가, 개인전 5회,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다수 참여



- 고향집/117x91/Mixed media on canvas /2015
- 나무, 청바지, 진흙 등 오직 손바닥 촉감으로 그려낸 풍경화

엄윤숙

개인전 35회,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다수 참여



- 해바라기 I /162.5X162.5/oil on canvas/2018
- 색채를 통한 아름다움의 구현, 여백의미를 담은 정물화

엄윤영

개인전 17회,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다수 참여



- 월광/90.9X72.7/oil on canvas/2017
- 나무를 표현한 풍경화를 서정적이고 은은한 색감으로 담아낸 작품

오순이

구족 화가, 개인전 15회,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다수 참여



- 내 마음의 풍경/한지 채색 먹/75X90cm/2016
- 전통적인 수묵담채 기법에 현대적 감각과 작가의 개성이 살아있는 산수화

이영철

개인전 31회,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다수 참여



- 청혼-분홍의 시간/60x60cm/ Acrylic on wood/2020
- 바쁜 삶 속에서 사랑, 우정, 꿈, 웃음 등을 환기시킨 작품

조철수

개인전 20회, 국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다수 참여



- 늙은 여자의 수다 II /120x160cm /Mixed media on panel/2019
- 어머니의 눈물과 그리움, 사랑을 담아낸 작품

'행복을 그리다展'

일시

6월 8일(화)~7월 11일(일)
11:00~19:30 (18:30 입장마감)

장소 현대예술관 미술관

티켓가격

일반 2천원 / 중고생 이하 1천원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 1천원 할인)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가슴 졸이는 스릴러로 시원하게 여름을 맞자!

콰이어트 플레이스 2 (A Quiet Place: Part II)

장르 스릴러 **개봉일** 6월 16일(수) **감독** 존 크래신스키

출연 에밀리 블런트, 킬리언 머피, 밀리센트 시몬스 등

줄거리 실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의 공격으로 일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 아이들 대신 죽음을 선택한 아버지의 희생 이후 살아남은 가족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갓 태어난 막내를 포함한 아이들과 함께 소리 없는 사투를 이어가던 엄마 '에블린'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집 밖을 나서지만,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한 바깥은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볼거리 소리 내면 죽는다! 소리 없는 공포감으로 흥행에 성공한 1편. 더 넓어진 세계관, 새로운 인물, 낯선 공간! 조용한 가족에게 들이닥친 고요한 공포가 또 다시 시작된다.



발신제한 (HARD HIT)

장르 드라마, 스릴러 **개봉일** 6월 중 **감독** 김창주

출연 조우진, 지창욱, 이재인, 진경 등

줄거리 은행센터장 '성규'는 아이들과 함께 출발한 평범한 출근길에 한 통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 너머 의문의 목소리는 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폭탄이 터진다고 경고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성규는 곧 회사 동료의 차가 같은 방식으로 폭발되는 것을 눈 앞에서 목격하고, 줄지에 부산 도심 테러의 용의자가 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다.

절체절명의 순간, 경찰의 추격 속 의문의 발신자와의 전화마저 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볼거리 도심 추격 스릴러 영화의 계보를 이을 기대작. '더 테러 라이브', '끝까지 간다'의 긴장감을 책임진 김창주 감독의 특유의 빠른 편집과 화면 전환이 포인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 著)



저자는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하고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투자의 대부입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돈에 대한 가벼운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뇌리 속 깊이 남았던 저자의 한마디가 문득 생각나서 책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다. 뱀이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 최면이 걸려있다.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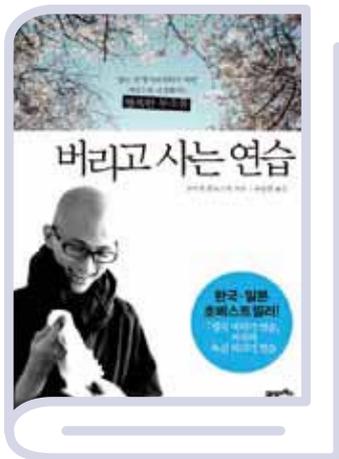
처음엔 은유적인 표현이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을 여러 번 곱씹어 보면, 돈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이고,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신 있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다루는 것임을 이 책의 끝자락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돈을 투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주인과 개 등 쉬운 비유를 통해 강한 일침을 줍니다. 돈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 **박지은** 책임엔지니어

버리고 사는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著)



최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며 너나 할것 없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도 뒤늦은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관련 서적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여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질을 추구하는 요즘 세상에서, 무엇을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건 지 반신반의하며 읽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자가 일본의 스님이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을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다 읽고 난 뒤에는 꼭 승려 생활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나에게 가치있는 것에만 선택하며 최소한의 소비를 지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욕이 채워져야만 그것이 마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 정의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을 수록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음의 풍요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 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 건조1부 **장영주** 과장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책의 저자는 초도작으로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작가입니다.

이 책은 우연이라는 세상 인연 속에서 직업과 환경 등이 너무나도 다른 네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연결해주는 탄탄한 연결고리는 없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질투, 이기적인 욕망, 사랑 등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현재의 삶,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일, 게다가 그들의 내면 속 이야기를 통해 진솔하면서도 대범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읽을수록 빠져드는 내용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을 수 있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파란 방으로 입실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선행자재부 **한창호** 소장

파란 방

(구소는 著)



• 지식정보센터 신간 추천 •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짓눌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연구개발, 복지 못지 않게 공들여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를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하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구단, 군대, 경찰, 소방관 등의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가 40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인 'SMART(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y Training)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개인의 일상이나 조직에 적용해 스트레스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

(왕팡 著)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hyeahn@hhi.co.kr / 현대미포조선 juno.park@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w125666@hshi.co.kr)

낮선 이에게 친절과 배려 ‘미소가 절로’

칭찬은 작지만 큰 힘을 갖고 있다. 칭찬을 하는 사람에겐 마음 속 따뜻함이, 칭찬을 받는 사람에겐 기쁨과 뿌듯함이 느껴진다. [칭찬합니다] 코너에서는 세상의 밝은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사우의 따뜻한 시선과 묵묵히 일상에서 귀감이 되는 사우의 선행을 소개한다.



“퇴근길 마주한 선행”

현대중공업 보상지원팀 김보라 사원

지난 4월 경 남목의 한 버스 정류장에 짐이 많아 버스에 오르지 못한 채 닫혀버린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시던 하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 근무복을 입은 한 사우분이 버스 기사님께 양해를 구한 뒤 할머니가 승차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버스에 올라 연신 고맙다 인사 하신 후 버스 카드를 찾지 못해 당황한 할머니께 자연스럽게 다가가 대신 결제까지 해주셨죠. 할머니께서는 이러면 안 된다며 한참을 찾아 돈을 건내셨습니다.

그날 공익광고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몽글몽글 따뜻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줬고,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만 보고 있던 제가 방관자가 아니었을까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의 마음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걸 보니 선행은 선행을 낳나 봅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명찰을 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무더진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일인데 큰 칭찬을 받는 것 같아 제가 되려 쑥스럽습니다. 저 또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조립1부 이지성 기사

“세심한 배려에 감동”

현대삼호중공업 멤브레인공사부 정재석 부장



제가 지난 4월 현대중공업 교차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아끼던 시계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백팩 옆 주머니에 넣어뒀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사실 그 시계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랍니다. 결혼 20주년을 기념해 10년 전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서 구입했던, 명품은 아니지만 나름 비싼 시계였습니다.

배터리 교체를 위해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일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아쉬워하던 중 5월 초 울전재 기숙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를 정리해 주시는 담당자 분께서 시계를 발견하시고 연락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성함을 여쭙보니 현우서비스 이경숙 님이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없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에 사우들과 미담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의 실수를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으로 바꿔주신 이경숙 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 역할을 했던 것뿐인데, 부장님께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현우서비스 이경숙 사원

칭찬하고 싶은 동료 사연을 접수합니다. 사보에 등록된 사연의 작성자, 칭찬 대상자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주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10년 지나면 못 받는다?”

사 례 A씨는 1998년부터 임대인 B씨 소유의 아파트에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해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에게 집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했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다가, 2012년 결혼 후부터는 해당 아파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만을 남겨두고 문을 잠근 채 다른 집에서 살고, A씨의 모친이 해당 아파트를 출입하면서 집기류나 우편물을 관리했다.

임대인 B씨는 2014년에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해 2015년 5월에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마쳤다. A씨는 2014년 무렵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2015년 5월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인도했다. 그런데 임대인 B씨는 임대차가 2000년에는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됐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됐다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 소멸시효란 관리자가 관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이 사안에서 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00년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2010년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본다면,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의무를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된다. 결국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안을 분석해 보자. 임차인 A씨는 1998년부터 2년을 기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 무렵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다만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2015년 5월까지 해당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즉 임차인 A씨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한 2015년 5월까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A씨는 비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00년 이후 14년이 지나서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했지만 임대인 B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그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00년부터 임차인 A씨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A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서 사용하였으므로, 2012년 이후의 이자만을 받을 수 있다.

글 정지원 변호사 (한국조선훈양 국내법무팀)

현대중공업 뉴스

그린수소 생산 실증설비 설치 MOU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6일(목) 울산시 테크노산업단지에서 울산시, 한국석유공사,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9개 지자체 및 산학연 기관과 '부유식 해상풍력 연계 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설비 구축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열린 그린수소 육성을 위한 비전선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송철호 울산시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등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동해 부유식 풍력단지에 100MW급 그린수소 실증설비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과 2030년까지 1.2G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를 가동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부유식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바닷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대규모 수전해(水電解) 기반의 그린수소 플랜트를 개발한다.

8천500억원 규모 브라질 FPSO 수주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11일(화) 싱가포르 조선사인 케펠(Keppel)사와 함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사가 발주한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1기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FPSO의 부유와 저장기능을 하는 선체(Hull) 공사를 수행하며, 케펠은 원유를 생산 및 처리하는 상부설비(Topside) 제작을 담당한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선체의 총 계약금액은 8천500억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FPSO는 길이 345미터, 높이 60미터, 너비 34미터에 총 중량 12만8천톤(t) 규모로, 약 9개월의 설계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LNG운반선 화물창 용접, 역대 4번째 무결함



현대중공업이 최근 그리스 소재 캐피탈 가스(CAPITAL GAS)사가 발주한 LNG운반선(3108호선)의 화물창 건조 공정에서 역대 4번째 '노 리크(No Leak)'를 달성하며, 용접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LNG운반선은 탱크 내에 영하 163도(°C)의 극저온 액화천연 가스를 싣고 운반하기 위해 가스가 직접 닿는 곳에 1만1천여 장의 보온재를 설치, 용접한다. 그 길이만 46km에 달한다.

노 리크란 가스 누수 등을 점검하는 용접부 기밀(氣密) 테스트에서 46km에 달하는 LNG선 화물창의 전체 용접부 중 단 한 곳의 결함도 발견되지 않은 '무결점 용접'을 의미한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1876호선(2008년 12월), 2854호선(2017년 5월), 2909호선(2018년 5월)에 이어 역대 4번째 노 리크를 기록했다.

첫 LNG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연료탱크 탑재 성공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일(월) 사내 1도크에서 LNG연료탱크를 1만4천800TEU급 컨테이너선(3162호선)에 성공적으로 탑재했다.

이번에 탑재한 연료탱크는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독립형 구조의 'LNG 연료탱크(HiPIX)'로 약 1만2천 입방미터(m³)의 LNG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특히 내부 구조 부재(部材)로 LNG의 유동 충격(슬로싱)을 최소화했고, 단열재를 기존 판넬타입 대신 세계 최초로 스프레이폼(Spray Foam/폴리우레탄을 스프레이로 발포하는 형태)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 컨테이너선은 6월경 진수를 거쳐 오는 10월 인도될 예정이다.



5만톤급 PC선 명명·인도



현대미포조선은 5월 14일(금) 울산 본사 4안벽에서 5만톤급 PC선 1척에 대한 명명식을 갖고, '뉴 호라이즌(NEW HORIZON)'사에 인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미포조선 신현대 사장, 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정기선 대표, 현대글로벌서비스 이기동 대표를 비롯한 그룹사 경영진들과 선주·선급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선박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선주사에 의해 '레드우드 마리너(REDWOOD MARINER)'호로 이름 붙여진 이 선박은 지난 2019년 11월 '뉴 호라이즌'사로부터 수주한 5만톤급 PC선 6척 중 세 번째로 건조됐으며, 길이 183미터, 너비 32.2미터, 높이 19.1미터의 제원을 갖추고 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은 같은 날 지난해 1월 수주한 5만톤급 PC선인 '포인트 리사스(PPOINT LISAS)'호를 '블루 웨이크(BLUE WAKE)'사에 인도했다.

LNG병커링선 라인업 확대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스페인 '스케일 가스(SCALE GAS)'사로부터 1만2천500세제곱미터급 LNG병커링선 2척(옵선 1척 포함)을 수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7천500세제곱미터급 LNG병커링선을 처음으로 건조한 현



대미포조선은 현재 건조 중인 1만8천세제곱미터급에 이어, 1만2천500세제곱미터 LNG병커링선을 수주함으로써 모두 3가지 사양의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수주한 LNG병커링선은 길이 133미터, 너비 22.3미터, 높이 12.2미터 규모로, 내년 6월 착공돼 오는 2023년 6월 선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이 선박에는 LNG화물운영시스템(CHS) 설비들을 독자 기술로 최적 설계해, 외국에 지불하는 기술료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LNG-DF 추진엔진 탑재 PC선 첫 인도

현대미포조선은 5월 7일(금) 2만5천톤급 PC선 2척을 선주사에 잇달아 인도했다.

'솔라 로마(SOLAR ROMA)'호와 '솔라 앨리스(SOLAR ALICE)'호로 명명된 이들 선박은 2019년 버뮤다 '메리디안(MERIDIAN)'사로부터



수주한 PC선 4척 가운데 1, 2차선이다.

길이 169미터, 너비 25.6미터, 높이 15.6미터 규모의 이들 선박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된 PC선 중 처음으로 LNG와 디젤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됐다.

또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딜 수 있도록 실린더형 압력식(IMO C타입)으로 제작됐으며, 데크 위에 설치된 LNG 연료탱크 2기는 580세제곱미터 규모로 기존보다 30% 넓은 '9%니켈강판'을 사용해 용접작업을 최소화하고 자재비도 절감했다.

LPG선 4척, LNG선 1척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초대형 LPG선 4척과 LNG선 1척을 수주했다.

LPG선은 아시아 및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에서 수주한 8만6천세제곱미터(m³)급으로 길이 230미터, 너비 32.25미터, 깊이 23.75미터

크기로 건조돼 2023년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LPG 이중 연료 추진엔진을 탑재,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 없이도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대응이 가능하다.

LNG선은 유럽 소재 선사에서 수주했으며, 2023년 10월 말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스마트 가공도면 배포 시스템 개발



현대삼호중공업은 '가공 NC 절단오작 Zero화 검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5월 6일(목)부터 이틀간 본관 8층 CAD 교육장에서 선체설계부와 가공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지난 20여년 동안 사용해오던 '선체도면 배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선체 절단오작을 제로화하기 위해 가공도와 가공 NC 절단데이터의 일치 여부 자동 검증, 가공 NC 절단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스마트한 기능들을 추가했다.

특히 설계 작업자가 가공 도면을 등록하는 시점에서 1차, 현업부서에서 가공도를 출력할 때 2차로 자동 검증하는 이중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절단 오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돼 공정 안정화와 원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복관화습 NCRS 추진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5월 14일(금) 경영지원관 3층 대회의실에서 복관화습 NCRS 100% 자체검사 공장 인증 조인식을 실시했다.

이번 복관화습 NCRS 공장인증에 따라 LNG, LPG 호선의 핵심 공정인 Cargo, LFSS 시스템 파이프 복관화 공장에 QM이 상주하면서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상시로 과정 품질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품질정보 공유 플랫폼인 Q-Win을 통해 제공하면 선주/선급은 비대면 원격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공장 인증은 생산 공정 안정과 검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 선급에 승인을 추진하고 표준 ITP를 개정함으로써 복관화습 NCRS를 전 선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NCRS란 고도화된 IT 기술과 통신망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검사 방법이다.

그룹사·병원·학원 소식

현대일렉트릭

친환경 전력기기 사업 확대, ESG경영 속도



현대일렉트릭이 지난 5월 11일(화) 용인시 마북리에 위치한 R&D센터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친환경 전력기기 공급 등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은 ESG 경영 슬로건(Efficiency, Sustainability and Growth)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ESG 경영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친환경 경영을 통한 그린 임팩트 창출 △상호존중 및 참여를 통한 동반성장 도모 △공정하고 투명한 ESG 경영 실천 등 ESG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수행할 단계별 핵심과제들이 담겼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

아마존웹서비스와 건설장비 AI 고장 진단 기술 개발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5월 17일(월)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와 함께 국내 최초로 'AI 기반의 고장 진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굴착기에 AI와 IoT를 결합한 'AIoT 모듈'을 탑재, 장비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통해 장비의 이상 여부를 정밀하게 감지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스스로 성능을 발전시킬 수 있어 향후 축적된 데이터로 장비의 고장유형을 판별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는 원격으로 상황을 판단, 현장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대로보틱스

호텔서 고객 편의 돕는 러기지 로봇 출시



현대로보틱스가 호텔 어메니티·F&B(Food&Beverage) 딜리버리 로봇에 이어 최근 호텔 로비에서 투숙객의 각 방으로 고객들의 짐을 배송하고, 객실 위치를 안내하는 '러기지(Luggage) 로봇'(모델명: UNI100-L)을 출시했다.

이 로봇은 24인치 캐리어 4개, 최대 100kg까지 운반할 수 있고, 탈부착

이 되는 내부 트레이가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또, 전방 낙폭 및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가 적용돼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현대로보틱스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러기지 로봇을 2달간 시범 운영하고, 추가 기능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7조 수소발전 시장 진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5월 10일(월)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공동 추진을 검토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수소를 생산해 공급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합작 발전 법인에서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유 공장 운영으로 축적된 현대오일뱅크의 수소 제조 역량과 한국남동발전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발전 기술이 접목되면,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아시아 최초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 1천례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지난 5월 6일(목) 아시아 최초 '대동맥판막 스텐트 시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 1천례를 달성했다. 2010년 3월 국내에 처음 도입한 지 11년 만의 성과다.

80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96%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의 성공률은 99%에 달한다.

대동맥판막에 협착이 생겼을 경우, 과거에는 가슴을 열어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전신마취 없이 타비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전신마취에 비해 회복이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시술 후 3일째 퇴원한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로봇기술교육센터 개소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현대로보틱스와 지난 5월 14일(금) 울산과학대 서부캠퍼스 2공학관에 로봇자동화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로봇 응용기술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로보틱스 서유성 대표, 울산과학대 조홍래 총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약 400제곱미터(120평)의 규모로, 크게 스마트팩토리 데모라인(Demo Line, 6대의 다관절로봇과 협동로봇을 이용한 조립공정 라인)과 스마트팩토리 실습교육실(로봇 키트 8세트)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현대로보틱스가 울산과학대에 기증한 1억7천만 원 상당의 무인화 공정 시스템 등 다양한 실습장비가 갖춰졌다.

한편, 울산과학대는 지난해 11월 현대로보틱스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로봇 산업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 발 짝 물러섰더니 인연이 되더라”



세민기업 신은희



나의 퇴근은 독특한 차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깨에 메는 가방과 등에 짊어진 가방인데 난 조그마한 캐리어를 끌고 다닌다. 가방을 메고 다니기 무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갔다가 오느냐고 묻곤 한다. 우리회사는 세계적인 기술과 질 좋은 철판을 가지고 배를 만들기에 “예! 철판 나라 여행하고 온다.”고 한다.

어느 날 퇴근길 찬거리와 과일을 사기려고 평소에 잘 가는 시장에 들렀다. 토마토 한 박스와 피망, 달래 등 이것저것 사다보니 어느새 가방이 꽉 찼다. 이럴 때 캐리어가 제격이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누군가 갑자기 나의 캐리어를 빼앗아 마구 끌고 올라갔다. 좀 전에 과일을 샀던 가게 주인 아줌마였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가게 앞까지 가서는 캐리어를 열어 마구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가던 길을 멈추고 모여들었다. 아줌마의 성난 손은 순식간에 가방 안에 든 물건들을 바닥에 모두 다 쏟아냈다. “계산 안하고 그냥 갔잖아요!” 한다.

잠시 후 계산해줬던 삼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아줌마의 추궁에 삼촌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까 내가 계산 다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닌가.

순간 찬바람이 땀샘 날렸던 아줌마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수갑 찬 죄인의 모습이 됐다. 나도 당황스럽고 화도 났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말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고 나까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진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지만 집을 향해 오는데 미안하던 말 한마디 못들은 게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3일이 지나 다시 그 가게로 갔다. 주인아줌마는 나를 알아보고 몸 둘 바를 모르며 “손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사람 잘 만나셨어요. 내가 가게 물건 사주면서 도둑 취급당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 주는데 누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를 계기로 카드가 안 되는 그 가게에서는 내가 미처 현금을 못 챙긴 날 “오늘 현금이 없네요” 하면, 다른 손님 대하다가도 쓴살 같이 내 옆에 와서 “외상으로 가져 가세요”하고 말하는 허물없는 사이가 됐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인간관계가 깨져 소중한 인연을 등진 채 살 수 있지만, 한 발 짝 뒤로 물러선다면 더 깊은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감싸 안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다면 더욱 좋은 이웃으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현대미포조선 초롱회에서 선물한 운동화를 사러 다녀 왔습니다. 미포조선의 많은 근로자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은 저금통을 털어 저희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신다니 더 큰 감사와 행복이 전해져 옵니다.

“선생님, 어디가요?”, “마트~~, 마트엔 무슨일료요?”
 “느그들 새 신발 사줄라요?”
 “우와~ 왜요?”, “왜 우리만 신발 사주는데요 ?”
 “응, 새 신발 신고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펄쩍 뛰어올라보라고~!”
 “네영?? 하하하하!!!”

아이들은 제 각각 ‘나는 키높이 운동화가 갖고 싶었다’, ‘나는 발이 엄청 커보이는 신발을 살거다’라며 하하호호 신이나서 떠들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분들의 배품은 그저 신발이 아니고, 아이들이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이고 응원입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아이가 되고,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초롱회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많은 순간들은 세상의 많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민들레 홀씨입니다.

초롱회는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미포조선 초롱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품어주는 마을이 되

는데 마음을 아끼지 않은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분들께, 저희 종사자들과 아이들

이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포조선 근로자님들과 초롱회 회원님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날을 맞아 현대미포조선 초롱회에서 선물한 운동화를 사러 갔다 왔습니다. 미포조선의 많은 근로자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은 저금통을 털어 저희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신다니 더 큰 감사와 행복이 전해져 옵니다.
 생, 어디가요? 호~응그려요. 왜요? 느그들 신발 사줄라요?
 우와~ 왜요? 왜 우리만 신발 사주는데요? 응, 새 신발 신고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펄쩍 뛰어 올라보라고.
 네영?? 하하하하!!!
 아이들은 나는 키높이 운동화가 갖고 싶었다. 나는 발이 엄청 커보이는 신발을 살거다라며 하하호호 신이나서 떠들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분들의 배품은 그저 신발이 아니고, 아이들이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이고 응원입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아이가 되고,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초롱회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많은 순간들은 세상의 많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민들레 홀씨입니다.
 초롱회는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미포조선 초롱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생각하며, 아이들을 품어주는 마을이 되는데 마음을 아끼지 않은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분들께, 저희 종사자들과 아이들 이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포조선 근로자님들과 초롱회 회원님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드림.

“민들레 꽃씨와 같은 사랑 감사합니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황진 생활복지사

손녀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나의 아빠에게



현대삼호중공업 사스팀설계부
(주)에이스선박설계 임규린 대리

아빠의 딸 아들이 자랄 적엔 IMF, 회사부도 그에 따른 이직으로 끊임 없이 힘들어서 자식들 예쁘지도 모르고 지나갔었지?

어느새 아빠 큰 딸이 커서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낳아 키우고 있네...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던데, 복직하면서 다시 아빠와 살겠다고 할 때 흔쾌히 딸과 손녀를 위한 공간을 내어준 아빠에게 고마워.

아침 저녁으로 아빠 자식들 키울 때에도 해보지 못한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아.

아빠의 딸과 손녀를 위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복직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출근하며 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고마워.

언제나 건강하고 손녀랑도 사이좋게 지내줘! 아가는 아빠가 흔내도 아직 이해 못해!

내가 많이 사랑하고, 아빠의 회사생활도 나의 회사생활도 그리고 우리 둘의 아침 저녁 육아도 모두 힘내자!

파이팅!

FROM. 아빠를 사랑하는 딸 규린



2년 만에 전북 독주 옆고 선두 탈환, 리그 1위 질주!



울산현대축구단이 지난 5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천적' 전북 현대와 포항스틸러스를 연달아 제압하며 리그 1위를 질주했다. 울산현대는 지난 5월 19일(수) K리그1 전북과의 현대가더비에서 4대2로 압승을 거뒀다. 이어 5월 22일(토)에는 포항을 1대0으로 꺾고 리그 1위(승점 33)에 올랐다.

지난 3월 16일(화) 제주유나이티드전 이후 65일 만에 선두 탈환에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5월 12일(일)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이후 2년 만에 전복을 이기며 독주를 엮는 과거를 거뒀다.

지난 5월 22일(토) 열린 동해안더비에서 포항스틸러스에 1대0 승리를 거두며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자신감으로 우뚝 선 울산은 최근 리그에서 7경기 무패 행진(3승 4무)을 기록하고 있다.(5월 24일 기준) 한 경기를 더 소화한 2위 수원삼성에 비해서도 승점 3점이 앞선 선두다.

무엇보다 울산의 U-22카드 김민준의 활약과 골 넣는 수비수 '수트라이커' 볼투이스 활약이 눈에 띈다. 김민준은 지난 전북 원정경기에서 전반 8분 과감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후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냈다. 이어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 4명을 제치고 약 70m를 드리블로 질주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볼투이스 강원FC와의 경기에서 극적 동점골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북과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공수 양면으로 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주말과 주중 계속된 일정에 7경기를 소화해내며 선수들이 많이 지친 상태이지만, 홍명보 감독의 지휘와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로 K리그 선두에 다시 올라섰다는 평이다.

한편, 울산은 내달 20일 K리그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연기된 14R 성남과의 경기를 치른 뒤,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을 치르기 위해 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글 강한 사원(울산현대축구단 팬&미디어)

K리그1 울산현대축구단 경기 일정

일 시	상대팀	장 소
6월 20일(일) 16:00	vs성남	울산문수축구경기장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

일 시	상대팀	장 소
6월 26(토) 21:00	vs비에텔	탐마셋 경기장
6월 29(화) 19:00	vs빠둠	레 오 경기장
7월 2일(금) 19:00	vsPO승자	탐마셋 경기장
7월 5일(월) 19:00	vsPO승자	탐마셋 경기장
7월 8일(목) 23:00	vs비에텔	탐마셋 경기장
7월 11일(일) 19:00	vs빠둠	레 오 경기장



“실패가 아니라 시련에 불과하다”

올해 정주영 창업자님의 타계 20주기를 맞아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독후감 대회의 수상작 3편을 잇달아 연재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범서고등학교 2학년 이현 학생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인생의 첫 도전에서 좌절했을 때, 창업자님의 자서전은 실패가 아닌 그저 시련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따뜻한 위안을 줬다”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 이유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산등정기(峨山登頂記), 높은 산을 오르는 법

이 현 (범서고등학교)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을 표류라고 한다. 일상엔 원칙이 없고, 삶엔 주관도 없어서 나아가는 대신 흘러가고 있던 나는 소위 말하는 불합격자였다. 입시 실패와 함께 시작된 표류는 여섯 달 남짓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전진하게 된 날, 나는 정주영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는 뜻이 되고 키가 되었다. 나는 정주영 회장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고, 정주영 회장은 437쪽의 책에 담긴 85년의 삶으로 대답했다.

첫 번째 질문은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목표의 설정과 노력의 집합이었다. 나는 정주영 회장이 그만의 철학으로 세운 목표들과 밤을 새우던 노력에 대해 듣고 싶었다. 정주영 회장은 1947년, 현대건설

이 태동하던 해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은 ‘현대자동차 공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자동차 수리비 몇 십만 원을 수금하기 위해 관청에 갔더니 건설업자들은 건설비용으로 한 번에 천만 원을 넘나드는 큰돈을 받고 있었다. 정주영 회장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계속 몇 십만 원짜리 자동차 수리만 할 수 없다. 큰물에 뛰어들자.’ 정주영 회장의 가족과 동료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대였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 수리 공장의 사장이었다. 자동차 공업으로는 잔뼈가 굵었지만, 건설업에는 문외한이었고, 건설사를 시작할 자본도 부족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눈에는 번듯한 건설사로 성장한 ‘현대’의 모습이 보였다. 정주영의 대명사와도 같은 말, 도전정신은 이때부터 그

의 길라잡이였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일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일지라도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노력에 대한 각오로 정주영 회장은 일단 뛰어들어 헤엄쳐 나아갔다. 그렇게 '현대건설'의 전신인 현대토건사가 태어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졌다. 정주영 회장은 돈 한 푼 없이 부산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굶주림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당장 먹을 밥부터 걱정해야 했던 피난 생활 도중 정주영 회장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건설사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미군들의 숙소를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바로 미군과 계약을 맺고 약속대로 완공하여 미군의 신뢰를 얻었다.

정주영 회장은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군 관련 공사를 연이어 받아낼 수 있었고, 이 공사들은 훗날 '현대건설'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듯 정주영 회장의 성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찾아온 기회를

과감히 붙잡는 용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자신의 역량을 믿고 뛰어들었다. 무엇보다, 정주영 회장의 목표는 원대하고 과감했다. 그렇기에 전쟁도 정주영 회장을 좌절시키진 못했다.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과 목표를 바라보는 굳센 의지가 지금의 '현대'를 있게 한 것이다.

정주영 회장이 대답을 마치자,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날이 떠올랐다. 험난한 길로 달려갈 것인가, 안온한 현실을 유지하며 평탄히 걸어갈 것인가를 두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나는 도전을 선택했다. 하지만 진학을 준비하며 내 선택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만큼의 고생과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를지 확신하지 못했다. 결국, 도전은 좌절되었고, 나는 한참을 떠다녀야만 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친구들끼

리 만난 적이 있었다. 친구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후회 안 해?” 그때의 나는 단번에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내 도전이 무모했다고 생각했다. 도전의 과정에서 겪은 시련은 결국 무의미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다르게 말했다. 나의 도전은 과감했고, 시련 속에서도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내 목표의 코앞까지 갔으며,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내 방법이 옳았다는 안도감이나 자기만족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나

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정주영 회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언젠가 찾아올 기회에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

두 번째 질문은 실패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정주영 회장에게 물었다. “실패를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정주

영 회장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시작했다. 공사를 수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정주영 회장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어려우리라 생각은 했지만, 공사는 생각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힘들었다. 낙동강의 빠른 물살 때문에 교각조차 세우기 어려웠고, 물가마저 끝을 모르고 치솟아 기름 단가가 3배 넘게 급증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집을 팔고 빚을 내면서까지 공사를 지속했다. 기업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6천 5백만 환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남겼지만 끝내 완공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의문점이 생겼다. 고령교 공사는 어떤 관점에서 실패였다. 어떤 힘이 그를 실패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아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였을까? 나는 그 힘이 목적의식

“

나의 도전은 과감했고,
시련 속에서도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내
목표의 코앞까지 갔으며,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라고 생각했다.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적들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패가 아닌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속에 이러한 근거가 숨어있는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도 그다웠다. 돌아가거나 멈추어 있는 게 아닌,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으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여 정주영 회장은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렸다. 고령교 공사에 쏟아 부은 정주영 회장의 땀방울과 눈물이 그 증거이다.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을 핑계 삼아 내가 가던 길이 끊긴 양 주저앉아 있던 것이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껏 실패라 생각했던 경험이 내 목표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던 필연적인 장애물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길을 다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명확한 목적의식과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노력, 그렇게 나는 실패가 아닌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두 질문에 대한 정주영 회장의 대답은 내가 걸어갈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실패가 드리운 안개를 걷어내고 마침내 꿈이라는 지평선 너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이 생긴 꿈이, 멀지만 화창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문득 의문이 생겼다. **지평선 너머, 꿈을 이룬 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번에도 답은 정주영 회장의 삶에 있었다. 정주영 회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꿈꾸었다. 그 꿈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온몸으로 겪던 최빈국에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꿈을 이루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 같이 잘사는 세상을 원했다. 사회와 나라를 위해 정주영 회장은 가진 것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역사회교육 운동’을 통해 교육으로서 미래의 인재를 기르고자 하였다. 9년 후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사회복지에 뛰어들었고, 의료, 학술, 교육 등 다방면의 지원으로 많은 이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가서, 최초 휴전선을 열었다. 어릴 때 흠친 아버지의 소를 천 배로 값은 셈이다. 정주영 회장의 이러한 모습에서 나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사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에 내가 가진 것을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그렇게 나는 목표 너머의 삶을 배웠다.

‘아산’은 높은 산을 뜻한다. 그의 호처럼, 아산 정주영 회장은 산맥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 밤낮없이 산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면 다시 보이는 또 다른 산, 무한한 목표의 산들로 가득한 일생에서 정주영 회장은 누구보다 굳건했다. 희박한 산소 같은 가난도, 거친 암벽 같은 시련도 그를 막지 못했다. 정주영 회장의 투철한 신념은 ‘적당히’의 그물 따위를 만들지 않았고, 귀중한 시간을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했다. 반면 나는 어떤 반년을 보냈는가? 실패의 후유증을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우매하게도 흘려보냈고, 길을 찾아 나서는 대신 길이 없다며 주저앉았다. 90%의 확신과 9%의 자신감 대신 1%의 불안에 몰두했다. 그렇게 깊이 가라앉아 있던 나에게 정주영 회장이 말을 걸었다. 정주영 회장은 과감히 도전하라고 말했다. 명확한 목적의식과 노력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시련을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수면으로 나올 수 있었다. 지금 나의 해발고도는 0m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출발점이고, 앞에는 높은 산들이 솟아 있다. 과감히 도전하기가 두려울 때면, 이제 나는 나에게 묻는다. “이봐, 해보거나 했어?”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윤광철 사원

5월 15일(토)

신랑 **윤광철** · 신부 **박미숙**

먼 길 와주셔서 축하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겠습니다^^



현대중공업MOS 보전부 최홍용 6급기사

5월 23일(일)

신랑 **최홍용** · 신부 **김보람**

만나고 보니 같은 동네 살았던 우리 두 사람. 힘들거나 아플땐 꼭 곁에 있어주겠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사랑해 보람아~



현대삼호중공업 멤브레인공사부 김성열 조장

5월 30일(일)

신랑 **김성열** · 신부 **함순진**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축복과 축하의 마음을 기억하며, 저의 부부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자재지원부 권해운 대리

5월 30일(일)

신랑 **권해운** · 신부 **박지호**

힘들고 바쁘신중에도 어렵게 참석해주신분들, 축하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체계통합설계부 정범승 책임

5월 6일(목)

아빠 **정범승** · 엄마 **곽지혜** 아들 **정지승**

지승아!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현대미포조선 종합설계부 권오욱 책임

5월13일(목)

아빠 **권오욱** · 엄마 **오정은** 아들 **권현우**

건강하고 밝게 자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게 엄마, 아빠의 행복이야.

쉬어가는 페이지

당첨된 사우는 사원증을 가지고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상품(권)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이달의 퀴즈

물음표에 들어갈 동물은 무엇일까요?
 동물을 찾아라
 그림에 1을 더하면 동물이 된다. 물음표는 어떤 동물일까?

 + 1 = 

 + 1 = 

 + 1 = ?

문자 메시지
 **news@hhi.co.kr**

정답
 회사명
 부서
 이름

퀴즈의 정답을 7월 18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휴대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호 정답 3.
 거울을 보며 예쁜건 나라고 했던 계모

출처 : 뇌섹퀴즈(서범식 저)

퀴즈 당첨자

- 울산대학교병원 건강검진권** 송화영 현대중공업 LNG공사부

-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 조상기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 이지수 현대중공업 특수선구매팀
 - 허정윤 현대중공업 힘센엔지니어팀
 - 박정근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 시설이용권 (1만원)**
 - 신동민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 손금희 현대중공업 조선자재운영부
 - 장우혁 현대중공업 KING'S QUAY 공사부
 - 차유진 현대중공업 환경경영팀
 - 박희영 현대중공업 박용기계기술부
 - 김대영 현대중공업 프로펠라생산부
 - 박예린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

- 복지물 포인트 (2만원)**
 - 오 섭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생산부
 - 전우광 현대중공업 조선해양품질경영1부
 - 이 건 현대중공업 판넬조립부

- 울산현대축구단 유니폼(1개)** 이정업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 아웃백 식사권**
 - 신은지 현대중공업 자재운영부
 - 한지현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 호텔현대울산 뷔페권(2인)** 박준석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 호텔현대목포 뷔페권(2인)** 신재삼 현대삼호중공업 건조3부

- 호텔현대목포 케이크(1매)**
 - 박경민 현대삼호중공업 시스템품질경영부
 - 손서원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 사내 매점 간식 교환권(1만원)**
 - 김경한 현대삼호중공업 정보기술부
 - 이종훈 현대삼호중공업 시스템설계부
 - 명상조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 정상교 현대삼호중공업 도장1부
 - 장재훈 현대삼호중공업 원가관리팀
 - 배재구 현대삼호중공업 가공부

공감 마당

'현대중공업 가족 6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소감, 아쉬운 점이나 다음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7월 18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현대중공업 자재운영부 하재선 기사

힘든 상황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료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중공업 가족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 박예린 사우

최근 신에너지 시장의 중심인 수소에너지에 관련 글이 우리그룹사와 기업들의 동향을 쉽게 설명해 준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김정원 직장

세계 곳곳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공해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하는 선박 생산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모두 파이팅!



현대중공업 특수선시운전부 박치호 기원

기획 코너를 통해 수소경제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최충렬 기원

다양한 정보와 좋은곳을 소개해 주어서 힐링과 워라밸에 많이 활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현대삼호중공업 총무팀 박정은 사원

가족에게 보내는 사우들의 편지를 읽고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기에 괜스레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과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기재)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hyahn@hhi.co.kr / 현대미포조선 juno.park@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w125666@hshi.co.kr)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현대예술관
HYUNDAI ARTS CENTER



범 내려온다

LEENALCHI

이날치

수궁가

2021. 7. 9(금) 20시 | 7. 10(토) 15시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미취학 아동 관람 불가)

티켓예매 현대예술관(www.hhiarts.co.kr)

공연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